

#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신 미 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으며 대가족제도를 채택하였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우리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 되었으며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안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는 노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혼동을 가져와 그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현대의 학과 기술공학의 발달의 결과로써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부가하여 그들의 부양은 일가족의 문제일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이 되면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힘과 건강의 상실, 직업의 상실, 배우자, 친척, 친구의 상실이 그것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상실로부터 고독감과 무력감을 겪게 된다. 고독감은 질병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고통스런 인간 경험이다. 여러 문헌과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감소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사하고 이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간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가정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고독감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가정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3. 일반가정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4.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설계된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에 응해준 남녀 노인으로 C시내에 거주하는 일반가정 노인 74명과 두 곳의 양로원과 한 곳의 요양원에 거주하는 시설거주노인 59명, 총 133명이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와 Russell, Peplau 그리고 Cutrona(1980)가 개발한 개정판 UCLA 고독척도로 김교헌, 김지환(1989)이 번역 사용한 고독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1995년 8월 5일부터 20일까지로 15일 동안 대상자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x 통계처리를 이용하였으며,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Chi-square,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독감에 대한 평균값은 일반 가정노인에서 41.47이었고 시설거주노인에서 49.03으로써 두집단의 고독감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t = -4.05, p = .000$ ). 이것은 시설거주노인이 일반가정노인에 비해 더 고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시설거주노인의 고독감 점수는 49.03으로 조

\* 1996년도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임

사되어 정신질환자(45~50점)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신체질환자 및 그 가족(33~38점), 대학생 집단(24~41점)보다도 고독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연령층의 고독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2. 간접지각지지에 대한 평균값은 일반가정노인에서 90.04이었고 시설거주노인에서 82.50으로 두 집단의 간접지각지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t = 2.41, p = .017$ ). 직접지각지지에 대한 평균값은 일반가정노인에서 52.25이었고 시설거주노인에서 42.74로써 두 집단의 직접지각지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t = 3.16, p = .002$ ). 대상자의 총 사회적 지지점수도 일반가정노인이 평균 142.29, 시설거주노인이 평균 129.25로써 일반가정노인이 시설거주노인보다 총 사회적 지지 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총 사회적 지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 = 2.97, p = .00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노인이 시설거주노인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이 지각한 고독감과 총사회적 지지 점수는 전체대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70, p = .000$ ). 일반가정노인 역시 고독감과 총 사회적 지지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80, p = .000$ ). 시설거주노인에서도 고독감과 총 사회적 지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44, p = .000$ ).

일반가정노인의 역상관 정도가 시설거주노인보다 현저히 높음을 볼 때 일반가정노인이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더 크게 역상관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가정노인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정도가 적을 때 같은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시설거주노인보다 고독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 할 수는 없으나 Gaudin Jr(1993)의 유기된 가족에 있어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가 역상관을 나타내었고, Ginter 등(1994)의 두 개의 다른 남태평양 문화권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를 다룬 연구에서도 고독감은 사회적 지지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C.O.P.D 환자와 그 배우자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더욱 고독하였으며 지지망 수는 유사하나 지지 만족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더 만족하지 못하여 C.O.P.D 환자의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eele-Card 등, 1993). Barron 등(1994)의 노인에 있어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또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 상태에 따라 지지망 수와 지지 만족도에 관련되어 고독감에 연관되는데 기혼이고 배우자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노인에서 고독감이 적게 나타났다. Ryan(1989)의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도 고독감은 사회적 지지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독감은 여러 연구대상에서 사회적 지지와 역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고독감을 예방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4. 전체 대상자에서 고독감에 유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용돈정도, 수입(용돈)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사회활동 참여 여부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용돈정도, 수입(용돈)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이었다.

결론적으로 시설거주노인의 고독감 점수는 일반가정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일반가정노인이 시설거주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고독감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고독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